



만화가에서 '풍자시사입체만화'로 변신한 최정현씨가 지난 26일 국립과학관에서 아이들에게 웃겂이 작품을 만들어주고 있다.

만화가 최정현씨 '반쪽이의 상상력 과학전' 9월 14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슬리퍼가 카멜레온이 된답니다”

만화가로 20년 활동

생활폐품·고물이 멋진 예술로

작품마다 정치·경제 풍자 담아

“아이들에 생각 기르기 가르쳐야”

지난 26일 오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반쪽이의 상상력 과학전'을 찾았다. '반쪽이의 육아일기'로 유명한 만화가 최정현(54)씨는 이날 자신의 전시를 찾은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세탁소웃겂이'를 이용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모양의 작품을 만들어줬다. 최씨가 손과 펜지로 철로 된 불꽃없는 웃겂이를 이리저리 구부리자 웃겂이는 금세 자동차, 금붕어, 휴대전화 받침대, 안경, 구름 등으로 변했다.

만화가 최씨는 8년 전부터 입체조형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작품 장르는 '풍자시사입체만화'다. 작품 하나하나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토바이 몸통 부품, 다리미 등으로 만든 '911을 풍자한 대가리 열 받은 독수리', 나사, 나이프, 포크 등으로 만든 '새만금 게떼', 포탄으로 만든 '연평도', 페 타이어로 만든 '로드킬' 등 그냥 쉽게 보고 지나칠 수 없는 작품들이 전시장에 가득했다.

최씨는 대뜸 "광주와의 인연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만화가의 길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 미술대학 80학번인 그는 80년 5월 광주의 소식이 너무 궁금했다. 그해 12월까지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다. 이듬해 그는 학보사에 들어가게 됐

고, 거기에서 '운동권 인맥'과 '지하조직'(?)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소식지의 만평을 전담하게 됐다.

"어느새 저는 만평가가 돼 있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는 한겨레 신문의 모태가 된 '말'지에 만평을 그렸죠. 학보사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선배들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신문에서 여성문제를 다루는 만평을 맡게 됐어요."

그는 여성신문에서 만평을 1년 정도 연재했을 때 딸 하예린을 낳았다. 이를 계기로 여성신문사 측에서 육아일기를 제안했다. 경상도 남자였던 그는 처음에는 "남자가 '쪽' 팔리게 무슨 육아일기를 그리느냐"고 거절했다. 하지만 육아일기가 인기를 끌면서 그는 그때부터 '반쪽이'가 됐다.

20년이라는 세월동안 만화가이자 시사만평가로 활동한 최씨는 한참 때는 한 달에 13곳에 연재를 했다.

"반쪽이의 육아일기를 끝내고 런던 자연사박물관에서 본 작품들이 제게 영감을 줬어요. 거기에서 본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을 해보자는 결심을 했죠. 그때부터 사람들의 손길을 거처간 물건들이 예사로 보이지 않았어요."

지난 8년간 최씨가 해온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그의 상상력에 한계가 보이지 않는다.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들이 거의 손을 거치면 유머가 가득한 작품들로 재탄생한다.

"물건마다 의미를 생각하고 작품들을 만들어요. 모든 사물들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슬리퍼가 카멜레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문장을 쓰려면 단어가 필요한 것처럼, 제 작품들의 단어는 사람들과 인연이 있었던 물건들입니다. 만화가 아이디어였으면 제 작품들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단계죠. 아이디어에만 그치는 것은 유명한 건축가가 스케치만 하고 건물들 짓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는 최근 현대미술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는 현상이 안타깝기만 하다. 학교에서는 그릇을 배우고, 그걸 채우는 내용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왜 그려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해요. '졸라맨'을 그리더라도 직접 생각하고 연출해서 그리면 그게 어느 순간 진화해서 자신의 캐릭터가 되고, 그림이 되는 것이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잡아낼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과 능력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실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그림을 들고와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곧잘 그린 아이들도 많아요. 절대 학원에는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고, 연상되는 그림을 그리라고 충고 합니다. 보고, 따라 그리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8년간 고품질수처럼 이곳저곳에서 고품을 사모았던 그는 최근에는 고품 가격만 봐도 세계 경제

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 흐름은 곧 작품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는 처음 풍자입체시사만화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고물로 만든 자연사 박물관'을 짓는 꿈을 꿔다.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고쳐먹었다.

"전국에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문화회관, 미술관, 박물관이 얼마나 많아요. 매년 본 전시, 어려운 전시만 열리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갈 겁니다. 제가 박물관을 만들면 항상 똑같은 것이지만 제가 가면 거기에서는 항상 100%로 신선한 것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최씨는 딸 하예린이가 미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에는 책을 냈다는 소식과 함께,

한편 전시는 9월14일까지 열린다. 문의 062-960-6210. /글·사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가스스토로 만든 '하마터면'



20년간 쓴 펜촉으로 만든 '고슴도치'

'김원중 달거리' 즐기며 더위 탈출~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은 매월 마지막 주 관객들을 만난다. 공연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빵공장에 보내진다. 69회 달거리 공연이 당신을 기다린다. 28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이번 공연의 주제는 '역(逆)'이다. 찌는 듯한 폭염에, 이해 안되고 짜증나는 일 때문에 힘든 일상을 확 바꿔보자는 의미다. 폭염 속의 여름을 견디게 하는 시원하고 즐거운 노래와 그림, 영상을 만날 수 있다. 피아니스트 박의혁의 재즈 공연과 국악인 윤진철의 공연, 바닥프로젝



트(임용, 김영훈, 김현우)와 김원중의 무대가 펼쳐진다. 무대를 꾸미는 이번달의 화가는 김정연씨다. www.kimwonjoong.com.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 mekim@

도립국악단, 대학생 협연자 모집

성악·기악 8월 27일 오디션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오는 9월 27일 목포시민문화센터에서 펼쳐질 전남도립국악단의 '정춘 樂' 공연에 함께할 대학생 협연자를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성악(판소리·가야금병창)과 기악(현악·관악·타악) 분야며, 오는 8월 27일 오디션을 통해 분야별로 5~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오디션 곡목은 전남도립국악단(www.jpg.or.kr)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춘 樂' 협연공연에 함께하고 싶은 전통음악 전공 대학생은 8월 22일까지 전남문화예술재단(www.jncf.or.kr)과 전남도립국악단(www.jpg.or.kr) 누리집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1-375-6928.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生'을 찬미하다

고흥 남포미술관 9월14일까지 '태훈연'

고흥 남포미술관은 오는 9월14일까지 조각가 최태훈씨를 초대해 '태훈연'을 연다. 최씨는 프라즈마 기계를 이용해 철판 표면에 무수한 구멍을 낸 다음 조각내어 이어붙이는 '프라즈마' 기법으로 잘 알려진 조각가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숲', 'Dual Skin', 'Invisible Man', '인(人)' 시리즈 등 그동안 대표작들을 보여준다. '숲' 시리즈는 작가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시작된 생과 삶에 대한 찬가다. 같은 듯 다른 패턴의 느낌과 벽면에 나타나는 그림자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Dual Skin'과 'Invisible Man'은 삶 속에서 느낀 실존의 이야기다. 그는 작품에서 반짝



'Dual Skin Project-Sofa'

이는 빛을 이용해 제도에서 자유롭고 싶어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문의 061-832-000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타사상품 포함 www.hong79.com ☎ 1899-0240

소파 식탁 보신 판매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런칭 가정용/업소용 150~400cm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SPACE 가구빌딩